

HEADLINE NEWS

서울·동경 땅값, 가장 높은 10곳 비교 (동경)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3월 25일 발표한 금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으로 전년도 대비 5.9% 낮아짐으로써 11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한편, 우리 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 기준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가 공표하는데, 금년도 공시지가는 지난 2월 28일 발표되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첫째, 양국 모두 전국 상위 10개 지점들이 서울과 東京에 집중해 있다. 둘째, 서울의 경우 상위 10개 지점이 대부분 명동에 있으며, 그 외에 총무로, 종로, 을지로 등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東京은 마루노우치, 오오테마치, 긴자 등의 도심과 신주쿠 등 부도심에 분산되어 있다. 셋째, 우리 나라는 금년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28% 상승한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日本經濟新聞, 3. 26) (한국 건설교통부 지가 제도과 보도자료)

HIGHLIGHTS

도시환경

- ① 하수처리시설 대폭 확충해 하천수질 개선 독일: 마그데부르크市)
- ② 민관합동으로 '깨끗한 도시만들기 100일 청소 캠페인' 전개 (시애틀)
- ③ 재활용가구 관련정보 소개하는 홈페이지 개설 (일본: 기타큐슈市)
- ④ 공사장 먼지 차단막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미국: 코첼라 밸리)

도시교통

- ⑤ 버스·전차, '승객중심' 서비스 강화 (독일: 브레멘)
- ⑥ 공항과 도심을 '경량전철'로 연결 (런던)
- ⑦ 저소득층 대상 교통지원책 확대 (샌프란시스코)
- ⑧ 교통혼잡 완화·대기오염 저감 위해 「주차장 동결」 추진 (보스턴)
- ⑨ 교통난 해소 위해 밴풀 (Vanpool) 서비스 '시행 (애틀랜타)
- ⑩ 거주자 노상주차요금 대폭 인하 (파리)

사회복지

- ⑪ 市營 시민이용시설 年中無休 추진 (요코하마)

행재정

- ⑫ 업체 담합 방지 위해 입찰·계약제도 개혁 (동경)
- ⑬ '시정실무 경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실시 (밴쿠버)

서울·동경 땅값, 가장 높은 10곳 비교 (동경)

☞ 1면서 계속

<서울·東京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개 지점 비교>

순위	서울			東京		
	위치	공시지가		위치	공시지가	
		(만원/㎡)	(만원/평)		(만원/㎡)	(만원/평)
1	한빛은행 명동지점 (명동2가)	3,330	10,989	마루노우치빌딩 (마루노우치)	1,870	61,710
2	무크(유투존 북동쪽) (명동2가)	3,160	10,428	신스미토모빌딩 (마루노우치)	1,480	48,840
3	영에이지 명동지점 (명동2가)	3,000	9,900	山野樂器긴자빌딩 (오오테마치)	1,480	48,840
4	한국투자신탁 명동지점 (명동1가)	2,750	9,075	東京산케이빌딩 (오오테마치)	1,400	46,200
5	리바이스(제일백화점 남쪽) (충무로2가)	2,700	8,910	三井住友銀行 신주쿠빌딩 (신주쿠)	1,390	45,870
6	버거킹 명동지점 (명동1가)	2,580	8,514	소니빌딩 (긴자)	1,380	45,540
7	양원빌딩(한신투자빌딩 북쪽) (명동1가)	2,520	8,316	住友信託銀行 동경빌딩 (마루노우치)	1,360	44,880
8	취천루(코스모스 북쪽) (명동1가)	2,520	8,316	긴자코마츠빌딩 (긴자)	1,340	44,220
9	미래빌딩 (종로2가)	2,230	7,359	동경상공회의소빌딩 (마루노우치)	1,330	43,890
10	롯데백화점 (을지로1가)	2,200	7,260	新宿高野第二빌딩 (신주쿠)	1,290	42,570

① 하수처리시설 대폭 확충해 하천수질 개선 (독일: 마그데부르크市)

독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州 환경부 장관은 현대식 하수처리 시설 설치와 공업생산량의 감소로 통독 이후 江의 수질이 대폭 개선 되었다고 새로운 하천품질평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江에 서식하는 어류가 20여종뿐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최소 33종의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어종은 줄미꾸라지와 잉어科的 민물고기 등으로, 예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종이었다. 州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수질 향상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라고 소개했다. 당국은 江과 하천의 품질등급을 열등한 수준, 적정한 수준 그리고 無부하로 구분했는데, 10년 전에는 江의 절반 가량이 열등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3가 上質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州는 이러한 수질 향상이 江의 자정능력 회복과 자연적인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Frankfurter Rundschau, 3. 12)

② 민관합동으로 ‘깨끗한 도시만들기 100일 청소 캠페인’ 전개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 신임 「그레그 닉켈스」 시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달성해야 할 일(100-Day Action Agenda: Get It Done List)’을 선정, 이 중 하나인 「Clean Seattle」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市는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는 시애틀의 명성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관합동으로 추진되는 이 운동은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市유관부서가 장비와 행정 지원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거리 청소로서, 지저분한 거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화단, 조경공간, 중앙분리대, 맨홀 등의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가로등, 문화재 표석 등도 정비하고 있다. ‘청소운동’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이 운동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www.ci.seattle.wa.us/mayor/cleanseattle.htm)

③ 재활용가구 관련정보 소개하는 홈페이지 개설 (일본: 키타큐슈市)

일본 키타큐슈市는 재활용 프라자에서 전시·제공하고 있는 가구類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최근 개설했다. 시내에는 재활용 프라자 2곳이 있는데, 대형폐기물로 나온 가구를 수리해 시민에게 추첨을 통해 판매하거나, 시민이 가지고 온 의류, 책 등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장롱, 식기장 등 가구類의 사진, 가격(수리대금 500~10,000엔), 규격 등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약 60곳의 재활용 가게와 시내에서 개최되는 'Free Market'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市환경국은 재활용 가구가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www.city.kitakyusyu.jp) (毎日新聞, 4. 4)

④ 공사장 먼지 차단막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미국: 코첼라 밸리)

미국 캘리포니아州 '남부해안대기질관리연합체(SCAQMD)'는 권역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먼지오염도를 저감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금년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직경으로 사람 머리카락의 1/7 수준인 미세먼지(PM10)가 가시거리 단축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일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시설물 건축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첼라 밸리 지역은 토지개발 및 농작물 경작시 그리고 비포장도로 등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 국가 환경기준은 연간 $50\mu\text{g}/\text{m}^3$ 이나, 1999~2001년 기간동안 미세먼지 오염농도는 $50.6\sim 52.7\mu\text{g}/\text{m}^3$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기질관리연합체는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오염대책을 수립, 2006년까지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표면의 포장 또는 먼지 안정화대책 추진, 비포장도로 건설억제, 건설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등 보다 세밀한 먼지저감대책 추진 요구,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이 있다. (www.aqmd.gov/news1/coachella_plan.htm)

5] 버스·전차, ‘승객중심’ 서비스 강화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市の 전차와 버스연합업체는 노선과 배차시간을 새롭게 확정하면서 승객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승객편의를 위해 러시아워 때에는 대부분의 노선에 7분 30초 간격으로 배차를 하며, 장애인과 유모차 탑승용 버스 30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지난해 도입한 현금카드 지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버스와 전차 내에 현금카드 지불장치를 설치했으며, 시내를 통과하는 6번 전차 내에 우체통을 설치했다. 현재 시내 2곳에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센터에서는 무료로 버스 및 전차 노선도를 배부하고 있으며, 승객을 위한 핫라인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노선 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브레멘市の 전차와 버스연합업체에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노선과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www.bsag.de/index_new.html)

6] 공항과 도심을 ‘경량전철’로 연결 (런던)

영국 런던의 City Airport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존의 Dockland 경량전철을 연장하는 방법이 최종결정되었다. 런던 City Airport는 1987년에 문을 열었으나, 런던 주변 5개 공항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승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시는 총 1억 1,500만 파운드를 투자, 약 3마일에 달하는 거리에 4개 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2005년 연장선이 완공되면, 공항까지 가는 시간은 Bank역에서는 21분, Canary Wharf역에서는 14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METRO, 3. 26)

7] 저소득층 대상 교통지원책 확대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Bay 지역 9개 카운티의 교통계획 수립, 계획의 조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광역교통계획기구인 'The Bay Are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MTC)'는 앞으로 3년간 저소득층의 출퇴근 등 교통지원 시책을 위해 주(州) 및 연방정부 기금 6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26일 발표했다.

현재 MTC는 저소득층의 고용과 구직에 통근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또한, 중·고교생들의 버스 요금을 인하해 주거나 무료화하는 시범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2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확장, 대중교통 중심축에 어린이 보육시설 설립, 카풀 및 '집까지 통행 보장 (Guaranteed Ride Home)'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있다.

(www.bizjournals.com/sanfrancisco/stories/2002/03/25/daily25.html)

8] 교통혼잡 완화·대기오염 저감 위해 「주차장 동결」 추진 (보스턴)

미국 보스턴에서는 앞으로 노외(路外)주차장 규모가 일정 수준에서 영구적으로 동결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이미 1993년에 승인되었으나, 재정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 「주차장 동결(Parking Freeze)」 정책은 이 지역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및 카풀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개발업자와 계획당국이 주차장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할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상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미국내에서 「주차장 동결」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는 케임브리지,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이 있다.

(www.boston.com/dailyglobe2/091/metro/Parking_freeze_eyed_in_S_Boston+.shtml)

9] 교통난 해소 위해 ‘밴풀(Vanpool) 서비스’ 시행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의 광역대도시권 교통계획기구인 ‘The Georgia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GRTA)’는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교통수단의 선택범위 확대를 위해 새로운 ‘광역 밴풀(Vanpool) 서비스’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올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차량 50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기존 밴풀 서비스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애틀랜타에서는 178대 규모의 밴풀 서비스가 100,000명당 4명꼴로 이용되고 있는데, 새로운 광역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2005년경에는 250대 규모에 100,000명당 7.5명꼴로 서비스 이용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www.grta.org/news_section/current_articles/vanpool_031502.htm)

④ 거주자 노상주차요금 대폭 인하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도심지 교통의 균형 회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노상 무인주차요금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노상 무인주차요금체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3개로 구분되는 구역(Zone)별 주차요금은 대략 30% 정도 인상된 반면, 거주자 주차요금은 80% 정도 대폭 인하되었다.

이번 조치는 첫째, 비거주자의 장시간 주차를 제한하고, 둘째, 거주자의 주차를 유도함으로써 시내에서의 차량이용을 줄이고, 셋째, 관광버스, 판매상, 수리원, 수공예 판매원 등 특수분류된 이용자들의 공공가로변 주차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VIVRE/STATIONNEMENT.HTM)

市營 시민이용시설 年中無休 추진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현재 市가 운영하는 시민이용시설을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운영키로 했다. 市는 그동안 지구센터, 노인복지센터,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주 1회의 휴관일을 없애는 등 무휴화(無休化)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市는 대상시설을 확대, 4월부터 市營 시민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주 1회의 휴관일과 국경일 다음날의 휴관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시설 및 전시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 1회 휴관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국경일 다음날의 휴관일을 폐지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회관, 주민문화센터, 어린이과학관 등 80여 개 시설에서 주 1회 휴관일이 없어지고, 요코하마 미술관 등 8개 시설은 국경일 다음날의 휴관일이 없어지거나 휴관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도 연말연시나 시설점검일에는 휴관한다.

(city.yokohama.jp/me/soumu/gyoukaku/mukyuu/00index.html)

업체 담합 방지 위해 입찰·계약제도 개혁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업체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계약제도를 개혁했다. 우선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현장설명회가 입찰 참가업체를 서로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담합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폐지되었다. 그 대신 都는 앞으로 설계·견적에 관한 문의를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하기로 했으며, 입찰참가자 발표도 입찰이 끝난 후에하기로 했다.

또한, 지명통지서의 배포는 같은 장소에 모아서 교부하는 종래의 방식을 없애고, 개별적으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토록 변경했다.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시 「공동기업체(Joint Venture)」의 경우 어떤 업체가 참가하는지를 입찰 전에는 알 수 없도록 「자주결성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현재에는 발주자인 都가 사전에 지명업자를 그룹으로 나누어 공표하는 「예비지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3. 30)

④ ‘시청실무 경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실시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市는 市교육위원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시청실무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현장감있는 직업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Partners at Work」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금년으로 7년째를 맞고 있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2·3학년생 120명이 참가했다. 참가학생들은 1주일간 시청에 출근, 업무보조를 하면서 시청 업무에 대한 직무경험을 쌓고, 장래 市공무원을 본인의 직업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市교육위원회의 청소년 직업준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밴쿠버 시청은 8,000여 명을 고용하는 가장 큰 고용시장 중의 하나이고, 다양한 분야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참가학생들은 이 기간동안 취업관련 교과목을 들으면서 100시간의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각자가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되며, 실무투입에 따른 보수는 받지 않는 대신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www.city.vancouver.bc.ca/ctyclerk/newsreleases2002/NRpartnersatwork02.htm)